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고린도전/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시편 17편
- 12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20 매일성경묵상 시편 18편 ~ 시편 23편
- 28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36 매일성경묵상 시편 24편 ~ 시편 29편
- 44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52 매일성경묵상 고린도전서 9장 ~ 고린도전서 14장
- 60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68 매일성경묵상 고린도전서 15장 ~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장 ~ 고린도후서 4장
- 76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84 부록 창조와 아담

6 June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3 시편 18편	4 시편 19편	5 시편 20편
9	10 시편 24편	11 시편 25편	12 시편 26편
16	17 고린도전서 9장	18 고린도전서 10장	19 고린도전서 11장
23 제3차 학습세례식	24 고린도전서 15장	25 고린도전서 16장	26 고린도후서 1장
30			

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시편 17편

6 시편 21편

7 시편 22편

8 시편 23편

13 시편 27편

14 시편 28편

15 시편 29편

20 고린도전서 12장

21 고린도전서 13장

22 고린도전서 14장

27 고린도후서 2장

28 고린도후서 3장

29 고린도후서 4장

제2차 청지기훈련

교회 주요일정

6월 23일

제3차 학습세례식

6월 28일

제2차 청지기훈련

나의 주요일정

- ① 2013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⑧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기근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보이십니까?
이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천대하기에 황량해져 가는
이 시대를 향해 담대히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은총의 자녀들을...
이 은총의 자녀들이 세워가는 교회에는
보혈의 복음으로 풍성합니다.
보혈의 증인들로 넘쳐납니다.

2013년 6월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진정한 피난처

1

토요일

시편 17편

찬송가 70장

묵상노트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서 자신을 기쁘게 살피주시기를 여호와께 호소합니다(1~2절).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따랐으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3~5절). 그러므로 그는 응답하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들을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원하며 주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6~9절). 원수들은 교만하며 은밀한 곳에 었드린 젊은 사자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10~12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에게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13~15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주님의 공의로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들지만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And I—in righteousness I will see your face; when I awake, I will be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Ps. 17:15)

• 기쁨에 잠겼으며(10절) : 세상에서의 재물과 풍요로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2013년 제2차 청지기 훈련(6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게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Bible Panorama

성경파노라마

구약의 제사②

제사의

	성격	목적	특징
번제	자원 · 의무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흠 없는 제물을 준비,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
소제	자원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 드림
화목제	자원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	제사 후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 받으며 드리는 동기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됨
속죄제	의무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음	각 사람의 신분, 지위(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 제물이 다름
속건제	의무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과 보상	범죄한 대상(하나님, 사람)에 따라 제물이 다르며, 범한 물건의 1/5을 더 냄

구약의 각 계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창조 상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그 관계를 단절시킨 원인인 죄의 해결이 먼저 요청된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에덴동산에서의 언약에 따라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흘려야 함을 보여준다(창 2:17). 그러나 각종 계사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의 반복되는 회생 계사를 규정한 이 회생 계사법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구약의 계사는 비록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 간구로 이루어지는 신약의 예배와도 동일하다.

목적에 따른 구분

의미	그리스도와 의 관계	관련성구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모범	레 1:3~17, 6:8~13 ; 롬 12:1~2 ; 빌 2:5~11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레 2:1~16, 9:16~17 ; 히 4:15 ; 계 12:11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레 3:1, 7:12, 16 ; 롬 5:1 ; 골 1:20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과 죄의 치명적 결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임	레 4:1, 13, 22, 8:14~17 ; 요 1:29 ; 요일 1:7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함	레 5:1~4, 15~16, 7:1~7 ; 사 53:4~6 ; 벧전 2:21~24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4~9 /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29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2:13~22 /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3:13, 15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6:35

1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 찬 송 |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 본 문 | 요한복음 1:4~9

⁽⁴⁾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⁶⁾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⁷⁾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⁸⁾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⁹⁾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 주일

3 월요일

☐ 시편 18편

4 화요일

☐ 시편 19편

5 수요일

☐ 시편 20편

6 목요일

☐ 시편 21편

7 금요일

☐ 시편 22편

8 토요일

☐ 시편 23편

사도 요한은 열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 20:31 _____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영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1:4~5,9 _____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 1:2~3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죽음의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 요한복음 8:1~20 말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사로잡아 온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죽음에 처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처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로부터 고발당하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요 1:8~10 _____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부패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 습니다.

※ 요한복음 3:1~21 말씀을 읽고 니고데모와 빛이신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요 1:17~18 _____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 누가복음 2:25~32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셨습니다.

행 13:47~48

요일 2:9~10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빛' 이시며,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빛' 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된 영생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부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 들이십시오. 사도 요한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시 73:28 _____

요 20:28~29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Blank lined paper with a vertical margin line on the right side.

3

월요일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시편 18편
찬송가 170장

묵상노트

그를 건지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확실하는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1~3절). 주님께서 사망과 같은 환난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4~6절),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모습으로 오셔서(7~15절) 그를 붙잡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16~19절). 그는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갚아주셨다고 고백하며(20~24절) 흑암을 밝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을 선언합니다(25~29절).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며(30~36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고(37~42절),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43~45절).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46~50절).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크신 권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 불의의 창수(4절) : 강한 급류처럼 갑자기 닥친 죽음의 위기를 말한다.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대시 18:46)
The LORD lives! Praise be to my Rock! Exalted be God my Savior!(Ps. 18:46)

기도제목

- 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와 올법은 완전하여

4

화요일

시편 19편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를 드러내며 이 놀라운 지식을 피조 세계가 세상 끝까지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4절). 하늘의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피조물입니다(4~6절). 여호와와 올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풍성하며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7~11절). 다윗은 숨은 허물과 죄과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12~14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가 나타난 하늘과 태양을 보며 순결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과 행동의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쉽게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Ps. 19:14)

• 소리도 없으나(3절) :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음을 말한다.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5

수요일

영적 전쟁 앞에서

시편 20편

찬송가 351장

묵상노트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고 왕의 제사를 받아 주시며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를 위한 왕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1~5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라고 선언합니다(6~7절).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의 구원을 간청하며 기도합니다(9절).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 왕을 위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셔서 왕이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릴 때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과 싸운 경험이 있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그는 전쟁의 승리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했고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시 20:5)

We will shout for joy when you are victorious and will lift up our banners in the name of our God. May the LORD grant all your requests.(Ps. 20:5)

• 성소, 시온(2절) :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김동하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

6

목요일

시편 21편

찬송가 518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1절).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으셨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여 순금 관을 씌우셨으며 영원한 장수의 생명을 주셨고 존귀와 위엄을 입혔으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2~6절). 또한 그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왕의 손이 원수들을 찾아내니 여호와와 진노가 풀무불 같이 그들을 소멸하며 그들의 후손을 끊고 그들의 음모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며(7~12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높이며 찬양합니다(13절).

이 시는 왕에게 주어진 승리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잘려넘어진 그의 모든 대적들을 풀무불 같은 진노로 직접 물리쳐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수많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미래에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며 미래에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시 21:13)
Be exalted, O LORD, in your strength; we will sing and praise your might. (Ps. 21:13)

• 순금 관(3절) : 왕권의 상징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인정됨을 상징한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7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 22편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시인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한탄합니다(1~2절).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을 때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지만 지금 그의 형편은 비방과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3~8절). 원수들은 황소, 사자, 그리고 개처럼 그를 공격하여 그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9~21절).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영광돌릴 것을 선포합니다(22~24절). 또 모든 나라의 주재이신 여호와께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될 것이며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의 공의를 전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25~31절).

사악한 원수가 끈질기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이 시는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 **별레(6절)** : 악인들에 의해 별레처럼 싫어함을 받고 있는 극한적 고통의 상태를 말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브람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대시 22:23)

You who fear the LORD, praise him! All you descendants of Jacob, honor him! Revere him, all you descendants of Israel!(Ps. 22:2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죽으신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8

토요일

시편 23편

찬송가 569장

묵상노트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안위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왕을 비유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으므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자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오로지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양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설만한 장소를 찾으려 한다면 결국 주리게 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들에게는 늘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Ps. 23:1)

•막대기(4절): 목자가 야생 짐승을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무기이다.

기도제목

① 목자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첫 선물은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 흘린 피로 막힌 담 허시고
이 세상 다 주어도 절대 받지 못하는 영생을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네
무딘 가슴으로 이제야 알고 보니 그것은 핏방울의 열매
마지막 자리까지 그리도 외쳤건만
눈 어두워 못 보았고 귀가 멀어 듣지 못했네

다니엘을 보게 하여 믿음 절개 가르치고
나사로를 듣게 하여 그 길을 보였건만
내 믿음은 아직도 찰없는 세 살배기
죄인의 힘으로는 절대 회개 못하고
아무리 노력한들 자기 부인 못하는
본 태성 머저리인 영원한 악동

지금까지 내 한 일은
상처로 가슴 아파 깊은 위로 애원하는 친구
상처 위에 상처 입힌 진정 없던 나의 위로
세상 것이 내 것인 양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나 몰라라 박대하며 뿌리쳤네
날마다 걸음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주님 양보 강요한 나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기도라며
세상 축복 위해 목청 높여 주님 손 비틀었네



주님 따라가는 그 길 힘들다 외롭다 틈만 나면 불평했고
금쪽같은 내 새끼 영원지고 갈 낭 짓 떼지 못했네
주님도 참으시고 두고 보시는 자를 알팍한 내 잣대로
판단했고 정죄했던 한심하고 어리석은 미숙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의인이라 인쳐 주심 내가 만든 것 마냥
나 혼자 잘 믿는 척 신앙 교만 부렸던 나

성령님의 은혜 받아 회개 입문하고 보니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콧물 한강일세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 꼭 붙들고 애곡하면 되는 그 길
이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의인 반열 올려주신 생명수
그 강줄기 좁은 길
은혜로 성화되어 승리의 길

그곳에서 재회하리
당신만이 진짜임을 참으로 전하리라
피땀 흘려 가신 그 길 다시 오마 약속하신
당신은 지금도 외치십니다
당신을 믿기만 하면
진실로 믿기만 하면
믿음의 소망으로 풍성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의 마지막 선물도 사랑이었습니다

임명희(권사, 3교구)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4~9 /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29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2:13~22 /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3:13, 15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6:35

2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찬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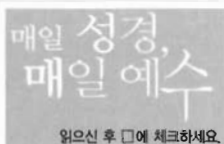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본문|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9 주일

10 월요일

☐ 시편 24편

11 화요일

☐ 시편 25편

12 수요일

☐ 시편 26편

13 목요일

☐ 시편 27편

14 금요일

☐ 시편 28편

15 토요일

☐ 시편 29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고하였습니다.

레 4:35 _____

요 1:29 _____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시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실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실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권능 중에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 창세기 22:1~19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창 22:8 _____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가 죄로 인하여 막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 출애굽기 12:1~14 말씀에 나타난 유월절 규례를 설명해 보십시오.

출 12:23

롬 5:9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 53:2~3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사 53:4~7 _____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영광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했던 어린 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영광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이로 오실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십니다.

계 21:22 _____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죽음을 홀로 받으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십니다. 이처럼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국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계 21:23 _____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어린 양을 전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을 구속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장차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벧전 1:19 _____

계 22:1~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받아쓰기 토끼음악 지킴이입니다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영광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토끼" 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토끼**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10

월요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시편 24편
찬송가 47장

묵상노트

다윗은 온 세계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1~2절). 이런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는 여호와께 복과 의를 받을 것입니다(3~6절). 다윗은 강하고 능한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선포합니다(7~10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만물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는 1.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깨끗하다 인정하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람 중의 그 누구라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털 한 오라기만큼이라도 자질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만 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손이 깨끗하며(4절)** : 행위가 순결한, 죄를 지었을 경우 철저한 회개의 상태를 말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대시(24:1)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Ps. 24:1)

기도제목

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님을 경외하는 자

11

화요일

시편 25편

찬송가 255장

묵상노트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1~3절), 주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4~7절). 그는 자신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하시길 기도합니다(8~11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언약을 보며 원수들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12~15절). 다윗은 주님께 그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6~22절).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참 구주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길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시 25:4)

Show me your ways, O LORD, teach me your paths. (Ps. 25:4)

• 친밀하심(14절) : 의논하다, 조언하다. 말씀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볼 수 있다.

기도제목

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묵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12

주님만을 의지하라

수요일

시편 26편
찬송가 499장

묵상노트

다윗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1~5절). 그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6~7절). 다윗은 자신이 주님께서 계신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두지 마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탄한 곳 무리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노래합니다(8~12절).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고, 거짓 신들의 거짓 축복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만 행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맞이할 멸망을 자신은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의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인간관계 등에 의지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것들이 사라질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 손을 씻고(6절) : 손을 씻는 의식은 무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위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시 26:12)

My feet stand on level ground; in the great assembly I will praise the LORD.(Ps. 26:12)

기도제목

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의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

목요일

시편 27편

찬송가 382장

묵상노트

다윗은 빛되시며 구원이신 여호와로 인해 적들의 모든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노래합니다(1~3절). 그래서 그는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4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7~9절).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11~13절).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선포합니다(14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자신이 가진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온 현실이 잠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로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Ps. 27:1)

• 위증자(12절) : 거짓말의 증언자. 악인을 모함하며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를 말한다.

기도제목

- 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다윗은 환난 중에 주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심을 바라고(1~2절),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3~5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고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힘이시며 구원의 요사이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6~9절).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그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구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할 때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지금 바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유익이나 가치를 얻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함(7절)** :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음성과 팔로 표현하기도 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시 28:9)

Save your people and bless your inheritance; be their shepherd and carry them forever. (Ps. 28:9)

기도제목

① 주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② 2013년 제 2차 청지기훈련(6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

15

토요일

시편 29편

찬송가 501장

묵상노트

시인은 여호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선포합니다(1~2절). 그는 여호와와 소리가 우렛소리와 같고 위엄차 백향목을 부수며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암사슴이 낙태하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3~9절).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10~11절).

하나님은 위대하신 만 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다윗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여호와와 소리로 표현합니다. 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폭풍우나 지진 같은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여호와와 소리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 소리의 위엄과 능력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세상의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속에서 자신을 보여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온 세계에 충만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긴 모든 힘을 다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
(대시 29:11)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blesses his people with peace. (Ps. 29:11)

• 여호와와 소리(3절) :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일임을 말한다.

기도제목

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환난과 핍박 in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다.
 바울은 참수형으로 죽었다.
 베드로는 십자가 상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
 야곱은 헤롯에게 목 베임을 당해 죽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 맞아 죽었다.
 바돌로매는 산 채로 가죽 베임을 당해 죽었다.
 도마는 쇠못으로 맞아 죽었다.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시몬은 멍둥이로 맞아 죽었다.
 심포리아는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강에 던짐을 받아 순교당했다.
 폴리갑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

교회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순교당한 성도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

코스피도 수퍼 슈퍼장군

[출처]

한국거래소(www.krx.co.kr) - 코스피 지수

[출처]

한국거래소(www.krx.co.kr) - 코스피 지수

한국거래소(www.krx.co.kr) - 코스피 지수

2013.12.13~15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4~9 /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29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2:13~22 /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3:13,15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6:35

3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 찬 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 본 문 | 요한복음 2:13~22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6 주일

17 월요일

18 화요일

19 수요일

20 목요일

21 금요일

22 토요일

☐ 고린도전서 11장

☐ 고린도전서 12장

☐ 고린도전서 13장

☐ 고린도전서 14장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며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라 경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2:19 _____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사십육 년이 걸렸으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삼 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허물어질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 유대인들 _____

· 예수님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깨어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딤후 2:5 _____

히 10:20 _____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성전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너희”라고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내가”라고 자신을 지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출 3:18 _____

마 12:40 _____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물고기 뱃 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던 요나에게, 사흘 뒤의 시간은 모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성전이요 영원한 성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몰아내신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영광받으실 영원한 성전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영광받으실 영원한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계 21:1~2,22 _____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계 3:12 _____

엡 2:21~22 _____

죄인에게 성전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므로, 모든 이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역할을 통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민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진실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계 21:22~27 _____

고전 3:16~17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고린도전서 9장
찬송가 354장

목상노트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복음을 위해 종의 자세로 달음질하는 삶을 권면하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변호를 자유와 순종의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1~2절). 사도라는 직분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범사에 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결코 '주인' 행세를 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로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를 섬기고 받는 자세와 태도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3~14절).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는 분명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달음질을 하였습니다(19~27절).

바울의 '달음질 하라'는 권면은 분명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이고, 양식은 명령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늘 현재를 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달렸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열심히 달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의 삶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달음질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종 된 자로서 섬기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달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달음질의 삶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더욱 풍성히 자리매김 되길 바랍니다.

• 자유인(1절) : '거리낌 없는', '편제된' 뜻. 곧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계약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가리킨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gets the prize?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1 Cor. 9:24)

기도제목

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에 매인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감동과 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

18

화요일

고린도전서 10장
찬송가 463장

묵상노트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죄악들을 살펴면서 현재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감당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1~13절). 바울은 그 역사적 사건과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들을 사례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 문제와 우상 제물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바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한 신앙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신자는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임을 적시하면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신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는 자임을 제시하면서 신자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가르칩니다(14~33절).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으나 그 모든 것으로 신자의 영적 유익과 신앙상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23절).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종교적 관습과 형식, 율법적 행위와 문화적 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항상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24절).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절)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음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만 행해집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도우며 더불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곧 신자의 삶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전 10:33)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1 Cor. 10:33)

• **시정(25절)** : 헬라어, '배설로'. 문자적으로: '고기나 음식을 파는 곳'이란 뜻. 이것은 당시 우상에 쉼 바쳐지는 고기들의 상가점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 ① 영광스런 복음의 부요함을 더욱 깊이, 풍성히, 가득히 알고 누리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고린도전서 11장
찬송가 198장

묵상노트

교회의 예배에 관한 문제(고전 11:1~14:40)를 다루면서, 특히 예배 시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2~16절)와 성찬식(17~34절)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과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와 아울러 정숙한 여인상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 원리와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3~7절). 더 나아가 바울은 주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시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임을 단순히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식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 당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기에 성찬식에서 다시금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찬의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성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방식으로 떡과 잔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 전통(2절) : 문자적으로 넘겨준다란 뜻 곧 교리 관습, 계율 등의 전승을 가리킨다. 교회는 신앙적인 유전(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5)

기도제목

- ①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

20

목요일

고린도전서 12장

찬송가 196장

묵상노트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음(1~3절)과 성령을 통해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4~11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본질을 밝히 드러냅니다(12~27절). 끝으로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 중에서 신자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로서 사랑을 제시함으로 자연스럽게 13장과 연결이 됩니다(28~31절).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은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보다 세심하고 주의 깊은 다양함입니다. 우리의 몸의 수많은 지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27절), 그리스도의 기쁜신 뜻을 수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각자의 소명에 따라 각각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8~11절). 또한 각자 그 은사를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26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의 하나 됨과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몸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은사의 경중을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 적대하는 관계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완성된 한 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공급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의 영적 유익을 돌보며 격려하게 하십니다.

•은사(4절) : 헬라어 '카리스마', '거저 베푸는 호의'란 뜻. 곧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성도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1 Cor.12:27)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21

금요일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전서 13장
찬송가 154장

묵상노트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을 열어 주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고전 12:31). 바울은 은사가 은사 되는 것은 곧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고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은사 되는 것은 사랑이 그 은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은사의 본래 목적과 의도가 성도 간의 영적 유익과 나아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허사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1~2절). 사랑은 모든 은사의 원동력이고 모든 활동의 뿌리이며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됩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나 중심이 지 않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고 참된 사랑의 관계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5:8).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요일 4:9~10).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8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사랑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자의 사랑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이며 감격입니다.

• **평과라(1절)** : 속이 텅 빈 금속 망둥이를 가리키는 데 이는 사랑이 결여된 신앙적 상태를 빔대어 내용(본질)은 없고 형식(비본질)만 요란한 것을 비유적으로 지시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1 Cor. 13:13)

기도제목

①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

22

토요일

고린도전서 14장

찬송가 190장

묵상노트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언과 방언의 상대적 가치와 용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1~25절),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나으므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지적합니다(1~5절).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의 주의점(6~19절)과 예언과 방언의 목적과 결과(20~25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공중 예배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26~40절). 먼저 교회 내에서 영적 은사들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26~33절). 그리고 여성도들이 공중 예배 시 질서를 지켜 공동체의 덕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34~36절).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자신의 언약 백성을 두시어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이루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것의 중요한 가치요 핵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은사가 성경적으로 바른지,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6~7, 20절). 신앙생활은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닌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전 14:12)

So it is with you. Since you are eager to have spiritual gifts, try to excel in gifts that build up the church.(1 Cor. 14:12)

기도제목

- ① 진리 안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추구하라(1절) : 사냥꾼이 짐승을 쫓음같이 간박하게 뒤따르라는 뜻. 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붙잡으려고 빨리 달려가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치열하게 쫓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기도노트



오직 예수

(요한복음 3:18)

1.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요 14:6~7).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요 16:7~11).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인간이신 예수님, 산 자요, 죽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뿐이시다(히 1:2~3). 자신을 믿고, 느끼는 것에 의존하고, 아는 것에 의존하고, 행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2.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온대(롬 10:14, 17~18). 멸망은 선행이나 고행의 길로는 피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만이 피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올 자가 없다(마 11:25~27).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이다(요 10:26~27, 29).

3.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그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롬 6:23). 주께로 올 때는 깨달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밖에 가져올 수 없는 죄인으로 나아가 한다(딤후 1:15). 예수께로 나올 때는 빈손에 죄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 복음의 초청은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고 단지 '죄인'이라는 것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다(마 11:28 ; 요 7:37~38). 구원의 기준은 수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죄인으로 온 자들만 받아 주는 것이다(요 6:35).

4.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무엇인가?

믿음의 보증은 믿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요 5:22~24 ; 행 16:31).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다면, 복된 특권이고 보증이다. 우리에게 내려 주신 믿음의 보증은 지옥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천국이 놓아 주지도 않는대요(6:29,40). 성경은 어떤 느낌이 올 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오직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명하신대(롬 3:23~26).

5.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심판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요 3:17~18).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고 구원 때문이다(롬 7:24~25, 8:1).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진리다(갈 2:20).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요일 5:1,4~5).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이 자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2013년 제1차 청지기훈련 메세지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4~9 /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29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2:13~22 /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3:13, 15**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6:35

4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 찬 송 |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재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본 문 | 요한복음 3:13, 15

¹³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¹⁵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3 주일

24 월요일
□ 고린도전서 15장

25 화요일
□ 고린도전서 16장

26 수요일
□ 고린도후서 1장

27 목요일
□ 고린도후서 2장

28 금요일
□ 고린도후서 3장

29 토요일
□ 고린도후서 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자”(the Son of Man)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신 이 명칭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마 8:20 _____

막 2:10 _____

눅 6:5 _____

요 1:51 _____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자로 칭하신 이유 두 가지를 써 보십시오.

(설교문 참조, cl. 시 8:4 ; 단 7:13 ; 겔 17:2)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요 3:13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요 6:51).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구원사역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낮아지신 메시아’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한 겸손을 나타냅니다.

빌 2:6~8 _____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겸손 중의 겸손이며,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마 16:24 _____

하늘로 들려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요 3:13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_____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빌 2:9~11 _____

벧전 3:22 _____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으나,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높아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참된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벧전 2:9~10 _____

십자가에 달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행하실 일에 대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3:14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_____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잔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마 16:21 _____

롬 5:8 _____

고전 11:25 _____

십자가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놓인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됩니다.

롬 8:17 _____

빌 1:29 _____

벧전 4:13 _____

골 1:24 _____

약 5:10 _____

히 2:1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생명으로 넘치는 우리 교구가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023. 1. 10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3~4절).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5~8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로서 그것의 역사적 증거를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을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은 새 생명을 얻어 참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11절).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14절).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생명은 허구일 뿐이고 기독교의 구원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는 철학적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활은 곧 생명이고 종생과 거듭남의 중심이요, 으뜸입니다.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닌 살아 있는 종교, 살아 있는 진리인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부활의 공로인 새 생명을 전가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부활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롬 5:10).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이 곧 신자의 것이 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 **만약되지 못하여(8절)** :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들의 대열에 말석이나마 참여한 감격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을 통감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1 Cor. 15:22)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지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고린도전서의 결론부로서 실제적인 교회 행정 곧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1~4절)와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5~18절),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19~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1절).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이 연보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고, 게다가 환난 중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 역시 지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습니다(고후 8:2~4, 9:1~5).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연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교제를 더욱 깊이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우주적인 교회의 보편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서 어느 한 공동체의 고통당함이 곧 자신의 고통당함인 양 여기며 그것에 함께하여 생명의 교제와 구제를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한 몸 됨을 의미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교회의 한 몸 됨이란 전체와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제로 이루어지고 형성되며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이고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이지 어느 한 교회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13절),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역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16,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17, 20절).

• 연보(1절) : '모으다'에서 유래한 말로써 '교제, 봉사, 구제'를 위해 '모으다'란 뜻 곧 기근, 핍박으로 인해 역경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가리킨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고전 16:24)
My love to all of you in Christ Jesus. Amen. (1 Cor. 16:24)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사랑함으로 삼기고 나누며 순종하게 하소서.
-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6

수요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찬송가 92장

묵상노트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재적 환난과 연단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성도들의 현재적 실존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승리보다는 실패가, 용기와 패기보다는 낙담과 좌절이 더하다는 시뭇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은 처음도, 과정도, 끝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전적인 은혜를 의지지만, 일단 구원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인간적인 수고로 신앙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신자로 산다는 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신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사형 선고를 통해 옛 사람이 죽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결코 슬픔이 아닌 기쁨이고, 실패가 아닌 승리이며, 낙담과 좌절이 아닌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환난 중에 있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 위로(3절) :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떤 자를 불러냄, 우리가 우리의 소송 사건을 변호하기 위하여 부른 자'란 뜻. 더불어 '대언인', '변호자'란 뜻도 담겨져 있다. 위로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격려하심을 가리킨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2 Cor. 1:4)

기도제목

- 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바울의 고린도 성도를 향한 끈끈한 사랑과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1~4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은 때때로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당혹함을 금치 못하도록 진리를 따라 매몰차게 증거하곤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근심에 잠기기도 했고 염려와 걱정에도 빠지기도 했습니다(7절).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단지 그들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더욱 견실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했습니다(11절).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그 향기를 풍기길 원했습니다(15절). 그러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얻게 하는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16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승리의 주체가 됩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김과 승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4절). 그러므로 그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나아가는 때 그 문이 열렸음을 경험하였습니다(12절). 이 모든 상황이 바울이 붙들었던 '이기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 줍니다. 그 누구의 거리낌도 없이 복음을 복음으로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에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and through us spreads everywhere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2 Cor. 2:14)

• 혼잡하게(17절) : '신의 말씀을 팔고 다니다'란 뜻. 장사꾼이 술에 물을 타 손님을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② 김동하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첫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추천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이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1~6절). 둘째 단락에서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립하여 묘사함으로써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7~18절). 바울은 추천서를 내세워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옛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임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 조문에 매인 자가 아닌 오직 영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확신합니다(4~6절). 또한 율법 조문의 직분으로서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으로서 의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과연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직분은 오직 의의 직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의의 직분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언약은 단지 육적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적 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인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에 그칠 뿐이었고 참된 구원의 실체를 맛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고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참 구원과 영적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눈물을 지어도 결코 참 자유를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 수권(14절) : ①이스라엘의 무지와 오해 ②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 ③사람이 상실된 편견과 엄격한 바리새적 위선을 뜻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2 Cor. 3:17)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② 2013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8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놓여 있음을 강조합니다(1~6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5~6절).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4절), 믿는다는 것은 그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음마저 자기 육체에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7~11절).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사도직과 연계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목적과 내용, 복음을 통해 겪는 고난과 역경조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영광입니다. 신자의 고난과 영광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도 신자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결코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해 줍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자질과 실력으로 그러한 고난을 이기거나 벗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과의 연합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후 4:14)

Because we know that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raise us with Jesus and present us with you in his presence. (2 Cor. 4:14)

• **질그릇(7절)**: 사람의 '육체' 또는 '전인격'을 가리킴. 이는 보잘것없는 유한한 것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 ① 그리스도와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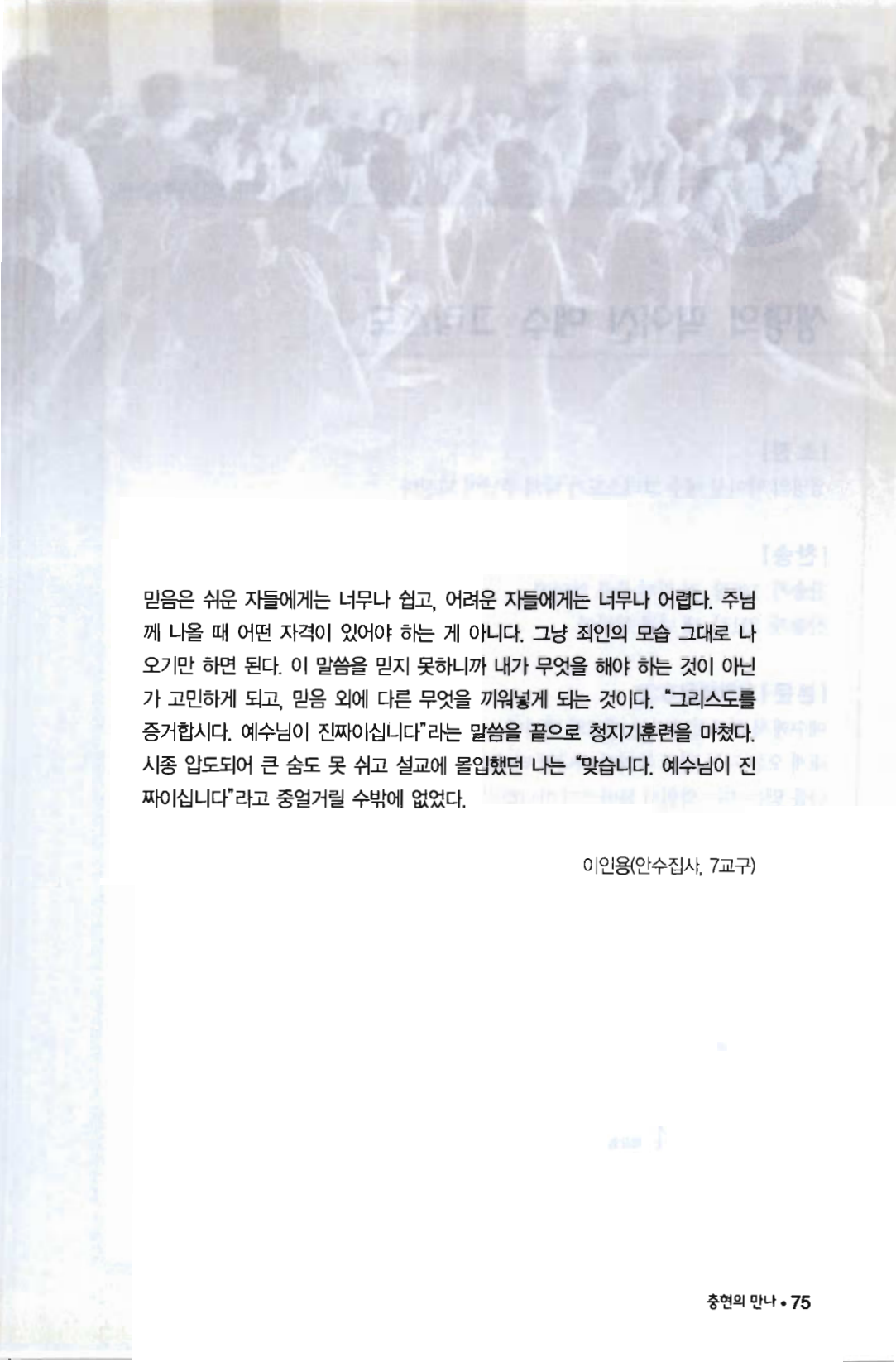
기도노트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말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왠지 유아적 용어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자만심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설교를 듣는 도중에 자연스레 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믿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의 축복과 바꾸지 말자.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와 바꾸지 말자.



믿음은 쉬운 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고,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을 끼워넣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청지기훈련을 마쳤다. 시종 압도되어 큰 숨도 못 쉬고 설교에 몰입했던 나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인용(안수집사, 7교구)

1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4~9 / 2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1:29
 3과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2:13~22 / 4과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3:13, 15
 5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6:35

5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 초 점 |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 찬 송 |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 본 문 | 요한복음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0 주일

1 월요일

☐ 고린도후서 5장

2 화요일

☐ 고린도후서 6장

3 수요일

☐ 고린도후서 7장

4 목요일

☐ 고린도후서 8장

5 금요일

☐ 고린도후서 9장

6 토요일

☐ 고린도후서 10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월절과 관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 성전 청결 사건(요 2장), 오병이어의 기적(요 6장),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의 향유 사건(요 12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라 다니는 목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요 6:26~31).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었습니다.

요 6:32~33 _____

‘참 떡’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만나와는 다른 떡입니다. 만나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일시적인 것이지만, 참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한 번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영생의 떡입니다.

요 6:34~35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떡이며, 이 떡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나아와서 떡을 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떡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생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김 당하셨습니다.

요 6:48~51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매일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이 세상의 음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그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서 '살아 있는 떡'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살아 있는 떡을 먹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 예수님께서 '내 살' 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의 의미를 써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매일 기념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 6:53~55 _____

'살과 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용어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위한 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전 11:24~26 _____

히 12:2 _____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
나의 실체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는 결코 여러분을 영원
히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려면, 영원
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양
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요 6:27 _____

※ '생명의 양식'(충현찬양곡집 37장)의 가사를 써 본 뒤 함께 찬양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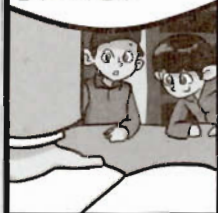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창조와 아담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자 그럼 우리 이제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단다.



빛과 궁창, 땅, 해, 달, 별, 어/조류, 동/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



그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어.



그리고 그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하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



그녀가 바로 아담의 아내 하와야.

그런데 하와를 뱀 속 사탄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
다고 유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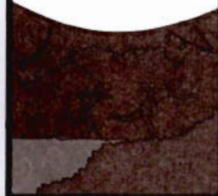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
갔고, 아담과 더불어 선악과
를 먹게 돼.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
계가 깨졌어. 바로 두려운
마음과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 생기게 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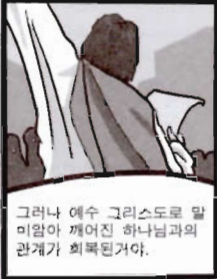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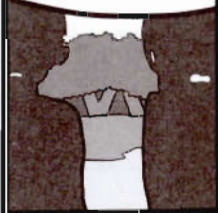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
고 죄를 지은 형벌은 무서운
것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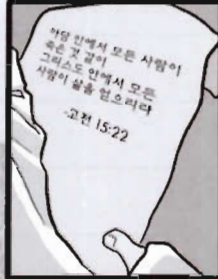
뱀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 온거야.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
에서 쫓겨났어. 모든 인간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거야.



하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고전 15:22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중현의 만나 2013년 6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양재웅

발행처 | 중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